

## 목타는 봄가뭄

강수량 평년의 36% 수준  
전남 모내기 절반도 못 해  
밭작물 피해는 더욱 심각  
文대통령 “가뭄대책비 조기 집행”

봄 가뭄에다 이른 더위가 겹치면서 논밭이 타들어가고 있다. 아직 눈에 드러나는 피해는 미미하지만 일부에서 논바람, 시들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평년의 40%에 미치지 못하는 강수량에 해안지역은 이미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6월 안에 큰 비가 없을 경우 올 농사에 피해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올 들어 지난 28일까지 전남지역 강수량은 154mm로 평년(423mm)의 36.4%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안, 무안, 진도, 해남 등 서남해안 일부 간척지에서 비는 물마름과 시들음 현상이 나타났다. 29일 현재 전남지역 모내기는 계획면적(15만9000ha)의 약 42%인 6만6900ha가 끝났다.

밭작물의 경우 수확기인 마늘양파보리 등은 큰 피해가 없으나 당분간 비 소식 없이 생육 초기 단계인 고구마와 고추 등의 생육 부진이 우려된다. 오는 6월 30일까지 큰 비가 없으면 62.5%의 저

수율도 급감하면서 모내기에 비상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가뭄 대비 대책과 관련, 물 부족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관정 개발과 저수지 물 채우기 및 절약 급수 추진을 위한 가뭄대책비를 조기에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가뭄에 대비한 농업용수 공급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전남도는 시·군 관계 공무원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가뭄 상황을 파악해 피해 우려 지역 위주로 다단양수 등 급수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또 벼의 재해보험 가입 기간이 오는 6월 9일까지임을 감안, 미가입 농가를 대상으로 가입 확대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가뭄 장기화에 대비해 벼 공동 육묘장을 이용, ‘에비못자리’를 설치하고, 물부족 눈에 콩 등 타 작물 재배를 확대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가뭄에 따른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해 예비비 15억원을 긴급 투입해 섬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되는 가뭄 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예비비는 신안, 고흥, 무안 등 가뭄 피해가 심한 지역을 우선으로 차등 지원해 간이양수장 설치, 소형 관정 개발 등에 쓰일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

## 불타는 봄날씨

광주 34.9도 무더위

전남 5개 시·군 폭염특보  
써통더위 이어질 듯

광주기상청 “올 여름 평년보다 덥다”

전남 5개 시·군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29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순천·광양·보성·구례·곡성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이날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순천 34도, 광양 33.9도, 담양 33.6도, 구례 33.5도, 광주·곡성·화순 33도, 보성 32.6도, 나주 32.3도까지 오르면서 올 들어 가장 높은 낮

최고기온을 기록했다. 광주 역시 34.9도의 높은 온도를 기록했다. 기상청은 연중 이틀 이상 최고 기온이 33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 주의보를, 35도 이상일 때 폭염 경보를 발효하고 있다. 이번 폭염주의보는 오늘(30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기상청은 폭염특보가 2014년까지 6월~9월에 발효됐으며, 2015년부터 연중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지방기상청이 발표한 ‘2017년 여름철 기상전망’에 따르면 6월과 8월에는 평년(각각 21.3도, 25.8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되고, 7월에는 평년(24.7도)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국민의당 “임명동의 협조”  
과반 확보...내일 처리할 듯  
한국당은 ‘불가’ 입장 유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 인준안이 오는 31일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국민의당이 29일 총리 인준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당론을 정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비록, 자유한국당이 인준 반대 입장을 정했지만 국민의당만 동의해도 총리 인준안 통과는 가능하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13명 중 민주당 소속이 5명, 국민의당 소속이 2명으로 두 당이 힘을 모으면 과반을 확보하기 때문이다. 정의당도 인준안에 동의하기로 했다.

국회 본회의에서도 찬성 예상표가 더불어민주당 120석과 국민의당 40석으로 재적의원(299석)의 절반을 넘기 때문에 인준안 처리는 가능하다.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중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이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으며 지도부는 회의를 열어 협조 당론을 결정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가 위장전입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도 “그럼에도 국민의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총리 인준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아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천명(고위공직자 배제 5대) 인사원칙을 포기한 데 대해 책임 있는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文 “공약정신 훼손 없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마치고 잠시 생각해 잠겨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이 총리 후보자 인준안은 30일 관련 절차를 밟고 애초 여야가 인준안 처리 시한으로 정한 오는 31일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리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 오르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특별위가 국회 의장에게 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날 특위를 열고 논의를 진행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세부내용을 조율해야 한다”며 “본회의를 밤 10시나 11시까지 늦춰가면서 처리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31일 이후로 처리가 연기되지는 않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 후보자의 국회 인준 불가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청와대는 국회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 관련자는

앞으로 국무위원 후보자에서 배제하겠다는 인사 원칙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논란은 준비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야당과 국민께 양해를 당부 드린다”며 “앞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검정 수사권 조정·카드 수수료 인하

5개 정당 44개 공통공약 선정

국정자문위, 국정 계획에 반영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9일 대선 당시 5개 정당의 정책공약을 검토, 44개의 공통공약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 44개의 공통공약을 우선 검토해 다음달 완성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 정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201개였고, 이 가운데 우선 추진할 공약을 중심으로 점점 수를 줄여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5개 당의 공통공약 44개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 내용은 다르더라도 큰 틀에서 정책 방향이 같거나 유사한 공약은 최대한 포함했다”며 “이를 토대로 분과별 검토를 거쳐 각 당이 이견 없이 수

용할 수 있는 확실한 공약을 추려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대선 당시 5당 후보가 공통으로 내걸었던 검정수사권 조정 공약이나 카드수수료 인하, 장기채권 채무 감면 등 가계부채 대책 등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김호기 기획분과 자문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국정비전 및 프레임TF’를 구성하고 내달 21일까지 문재인 정부 5년의 정사안이 될 국정비전 최종안을 만들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모자반 습격...서남해안 비상 ▶6면

新 湖南誌-장보고에 배운다 ▶18면

U-20 “잘 만났다 포르투갈”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605-1115

더불어 사는 광주

청년 일자리 만들기  
신혼부부 행복주택  
난임진료  
출산 축하금  
손자녀돌봄비·아이돌봄  
보육료·양육수당

아이와 가정이  
행복한 광주

생명존중  
임산부 배려  
양성평등 육아  
직장맘 지원  
일가정양립  
다양한 가족포용

# 아이는 축복이며 희망입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세상, 광주광역시가 만들어 갑니다

더불어 사는 광주  
행복한 시민

광주광역시  
GWANGJU CITY